

Interview

## 현실적인 영어 학습목표 정하고 ‘읽기’부터 공부해라

완벽한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대 영역을 고루 익혀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영어 말하기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자칫 영어의 듣기, 읽기 능력이 간과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인의 영어 능력과 학습 방법을 진단하고,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영어는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도, 취직을 할 때도, 그리고 승진을 할 때도 영어 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유리한 것이 많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영어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영어 말하기가 많이 강조되면서 Speaking 능력에 대한 사회적 인 요구가 높다.

영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글로벌화된 기업체일수록 그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체에서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재 선발 시에도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대학 또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어릴수록 말하기 강하고, 어휘력과 독해 능력 취약

그렇다면 우리의 영어 능력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인의 영어 능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전과 차이가 큰데, 영어에 대한 노출 정도는 어릴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20대가 ‘윤선생 영어’만 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조기 유학도 다녀오고 그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요. 최근에는 말하기, 듣기에 관심이 많고, 사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고, 특히 어릴수록 말하거나 듣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해요.”

서울대 영어영문과 이병민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것을 풍선효과라 생각해요. 해외에 살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기와 듣기가 강조되면서 과거에 비해 어휘력과 독해는 약해졌다고 한다. “문학하신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서울대생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원서를 잘 읽었는데 요즘은 번역본을 많이 읽어요. 중·고등학교 시험에서도 텍스트를 읽으면 답을 맞힐 수 있을 정도

로 문제가 쉬워진 경향도 있고요. 지긋하게 책을 읽던 과거와의 차이인 듯합니다.

결국 과거에 비해 점점 책을 덜 읽게 되면서 말하기는 잘해도 읽기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아쉬움이라고 한다.

### 학생들의 영어 실력 결정짓는 사교육

그러한 문제는 학부모의 기대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지방 초등학교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어느 부모가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가 <해리포터> 원서를 읽는 것에 썩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말하기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자녀가 영어의 4대 영역을 골고루 잘하는 것을 원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기대치와 학교 교육의 현실적 차이는 매우 심각하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국가교육 정규과정에서 영어 수업시간은 730시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4가지 스킬을 다 하기는커녕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 벅차요. 그래서 대부분 사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치와 학교 교육과의 현실적 차이에서 사교육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결국 학생별 편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은 개인적인 경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집에서는 이야기 책도 줄줄 읽습니다. 같은 영어과에서도 말하기 능력은 차이가 커요.”

### 영어교육 목표 설정이 먼저

여행을 갈 때는 목적지에 따라 배, 자동차, 비행기 등 이용하는 교통편이 달라진다. 이병민 교수는 영어 공부 방식도 목표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부모마다 기대와 수준, 교육 목표가 다르고, 국가영어 교

육과정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MB 정부에서 몰입교육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국민과 영어교육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어교육 목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법적 길을 제시한 거죠. 현재 국가가 내세우는 영어교육 목표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외국어로서 조금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적 요구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세계화 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추길 바랄 것이고, 시골의 어떤 사람은 학교 영어교육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국가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병민 교수는 영어교육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언어로서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 과연 몇 %가 영어를 접하고 살지,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기업에서도 영어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 능력을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갖추기를 원하고 요구할 게 아니라, 영어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목표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교육을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 4 Skills를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모두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시원하게 들을 수 있고, 책도 잘 읽고 글도 잘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어의 4대 영역에 대한 실력을 제대로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원어민 수준에 달하는 영어 능력을 갖추려면 11,860시간이 필요합니다. 모국어에 도달하는 만 4세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사용할 때 4년이 걸리는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중언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 Primary Language가 있고, Secondary Language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루 2시간 공부하면 16년 걸리고, 1시간 공부하면 32년이 걸리고, 하루 30분씩 공부하면 64년이 걸립니다. 스킬을 배울 때는 집중해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상 걸릴지 모릅니다.”

결국 외국인이 원어민과 같은 실력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설명 가능하더라도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어휘력은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으로서 영어 공부를 할 때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은 사회에서 영어의 4대 영역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영어교육을 전공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이중언어를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 Primary Language가 있고, Secondary Language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고 읽는 것을 하고, 말하기와 쓰기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활용할 때 자신의 위치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이후에 개발의 여지가 있으니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 영어 능력의 기본은 ‘읽기’

그렇다고 아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상을 보는 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더불어 다른 의사소통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어만 잡아서는 곤란하다. 언어 능력과 다른 지적 능력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능력과 결합되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병민 교수는 말보다는 글 읽는 능력을 중요시하며 ‘영어 능력의 기본은 읽기’라고 강조한다.

“말보다는 글 읽는 능력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많은데, 듣고 말하는 능력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사용합니까? 못 알아들으면 불편하고, 말은 설명할 때 필요하지만 기본 소통이면 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영어를 좀 하는 이가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까지 하는, 한마디로 벽을 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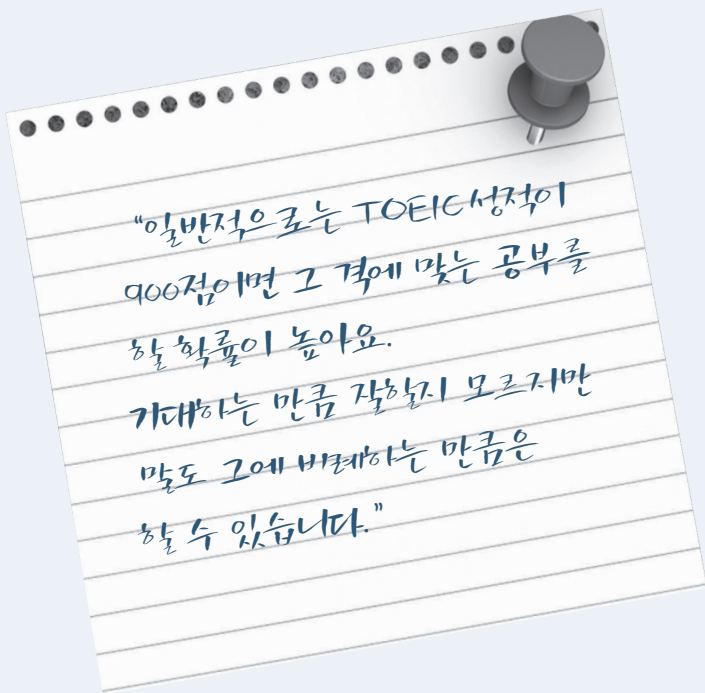
모두가 4대 영역의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하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Speaking이 되지 않았습시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은 많은데 말이 안 나와 답답했지만 지금은 반대예요. 말을 잘해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어에는 담는 기능이 있으니 그것을 채우는 게 필요한데,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원어민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서 Listening, Speaking을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아이 중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언어 영역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Reading과 Writing은 언어지만 문학적 스킬(Literacy skill)이고, Listening과 Speaking은 언



“일반적으로는 TOEIC 성적이 900점이면 그 격에 맞는 공부를 할 확률이 높아요. 기대하는 만큼 잘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그에 비례하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한다. “Writing 시험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 식의 타당성을 갖추려면 채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듣기 형식에 익숙한 형태로 시험 교재를 만들고 찍는 식의 공부를 합니다. 제대로 된 듣기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말하기는 더 심각합니다. 결국 1대 1 평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프, 비디오로 해야 하는데, 녹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공인 영어시험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결국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 능력입니다. 이것은 습득 모드가 달라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능력인데, Listening, Speaking을 먼저 배웁니다.

하지만 문학적 스킬은 후천적인 능력이에요. 학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말은 외워서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영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읽기’가 중요한 이유이다.

### 영어 평가, 타당성이 중요하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과 함께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방법의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이병민 교수는 말한다.

“흔히 평가에 의해 교육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평가방법 자체도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신뢰성은 가져야 하지만 타당성을 고려해야 해요. 그동안 회화가 강조되었지만 마땅한 평가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Listening이나 Reading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입학과 관련해 국가에서 인증시험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민감합니다. 시험 성적에 대한 집착이 심하거든요. 듣기나 읽기는 그동안 시험 양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쓰기나 말하기 부분이 문제예요. 동시에 60만 명이 보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점수 위한 영어 공부는 안 된다”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병민 교수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시험의 원칙은 현재의 수준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시험을 위해 공부해요. 정상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험이라는 특징이 있으니 TOEIC 시험을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TOEIC 점수만 높게 나오면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TOEFL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은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최소 소양 테스트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TOEIC 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사실 TOEIC 900점과 850점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고득점자를 선호하고, 그들에게 말을 시켜보니 잘 못한다고 실망합니다.”

TOEIC 고득점자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한다. “공부는 어떤 루트를 갖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은 점수를 위한 공부만 했습니다. 시험 점수에 집착해 영어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평가시험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는 TOEIC 성적이 900점이면 그 격에 맞

는 공부를 할 확률이 높아요. 기대하는 만큼 잘할 지 모르지만 말도 그에 비례하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 영어 능력 향상 위해서는 기업도 투자해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어교육은 터닝 포인트에 있다. “인구의 10%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영어에 매달리고 있다”고 이병민 교수는 지적한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 기업에서의 요구 등과 맞물려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책임 전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 현실은 위에서 아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에요. 기업은 대학에, 대학은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중학교는 초등학교에 실력을 갖춘 학생을 보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 돈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만 영어를 하게 되는 거죠. 영어는 평생 해야 합니다. 기업체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계속 외국어의 틀 속에 묶어놓고 있는데, 대학과 사회에서는 필요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목표와 대학의 영어교육 목표가 다른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 개인이 필요한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 영어 능력이 필

요한 부분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일본처럼 일정 부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이병민 교수는 강조한다.

짧은 시간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게다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동시에 배워야 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4가지 능력을 초보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사회의 요구와 학교 교육 간의 현실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10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영어교육 목표와 학부모의 기대, 사회 요구와의 불일치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영어 능력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